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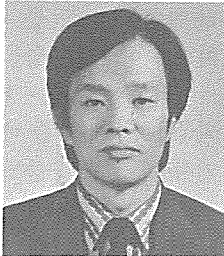
# 학술분야소식

##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학장에 李義雄교수 취임

### “새로운 연구풍토 활성화에 노력”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학장에 구강악안면외과의 李義雄 교수가 취임했다.

신임 李義雄 학장은 「대학이 지니고 있는 교육, 연구, 봉사라는 세가지의 커다란 목표를 조화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라고. 그리고, 「내 <신임 李義雄 학장> 외적으로 조화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구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그러한 연구풍토의 조성을 위해서는 재정, 기자재등의 측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李義雄 학장은 대학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치대 및 부속병원 신축건물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예정대로 준공되면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학내의 올바른 의견을 수렴해 그러한 바탕위에 활기찬 학교생활이 되도록 학장으로서 책임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젊음을 바친 학교에서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공명 정대한 책임행정에 주력하겠다고 대단한 결의를 보였으며, 임기가 끝나는 2년뒤에 공명정대한 비판과 평가를 받겠다고 했다.

신임 李義雄 학장은 1965년 서울치대를 졸업하고 1973년부터 19여년동안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 재직해 왔다.

그동안 구강외과과장, 치과병원장, 구강외과연구소장, 국방부의무자문관, 대한구강외과학회 부회장, 대한구강악안면 성형외과학회장을 역임했다.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논문집 16권 1호 발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은 지난 9월 20일 19편의 학위 논문을 수록한 16권 1호(통권25권) 논문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논문집에서는 김영수(예방치과)선생님의 논문을 필두로 총 416p의 논문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연구 논문

- 잇솔剛毛剛度와 洗齒劑磨耗度가 잇솔질의 人造齒垢除去와 齒面研磨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研究 ... 金英秀 · 白大日 · 金鍾培
- 韓國人 口腔健康實態에 關한 調查研究  
..... 金熙燦 · 文赫秀 · 金鍾培
- *Fusobacterium nucleatum*의 용혈활성에 관한 연구  
..... 최화석 · 송요한 · 최선진 · 김각균
- 구강편평세포암종의 DNA 합성 및 지저막 변화에 관한 면역조직화학적연구 ..... 이종현 · 임창운
- 표적세포 살상시 세포독성 림프구내 perforin mRNA와 단백질의 변화 ..... 김과연 · 김각균 · 최선진
- 치과주조용 티타늄합금의 주조성에 관한 연구  
..... 송광엽 · 김철위
- 치과주조용 금합금의 부식 평가에 관한 연구  
..... 최기열 · 김철위
- 인공타액에서 이말감 초기부식에 관한 실험적 연구  
..... 김미자 · 이명중
- 가시광선중합화에 따른 충전용 Glass Ionomer cement의 물리적 성질에 관한 연구 ..... 신동훈 · 권혁춘
- 근관 충전용 Sealer가 수종의 세포에 미치는 독성효과에 관한 연구 ..... 임미경 · 이정식
- 상기도 압력변화가 상기도 근육의 호흡성 활동에 미치는 영향 ..... 송형근 · 김중수 · 이종훈
- 放射線 照射가 人體의 口腔內 纖維芽細胞에 미치는 細胞毒性에 關한 實驗的 研究 ..... 鄭仁源 · 金圭植

- 하악골의 부위별 충격시 발생하는 응력에 대한 유한 요소법적 연구.....김성래·박태원
- 방사선 조사가 백색 악하선 미세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최갑식·최순철·박태원
- 연성 mandibular orthopedic repositioning appliance (MORA)가 안정근전위, 근피로도, 배근력 및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현기용·이승우
- 冷凍乾燥 및 脫灰 骨의 組織 反應에 關한 實驗的 研究.....嚴仁雄·閔丙一
- 가토 하치조신경 재생에 있어 자기신경절편과 신경재생촉진인자의 효과.....김현태·김수경
- 세포배양 및 피하조직 배식에 의한 수산화인회석과 생체활성유리의 생체적합성에 관한 연구.....김종여·고재승·황성명
- 치과 임플란트 시술시 골천공기구의 회전속도가 주위 골조직의 온도 및 골일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진걸·양재호

## ◎ 치과의사연금제도 실시 임박 강원지부 72%로 최고

치협의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윤희열 회장의 공약 사업중 하나인 「치과의사 연금제도」가 가입희망 4천 구좌를 넘어 곧 실시될 예정이다. 치협은 지난 41차 정기총회에서 2천구좌 이상일 때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연금관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2일 현재 치과의사 연금제도에 대한 가입희망 구좌 수가 4천 2백 13구좌에 달하고 있어 이 연금제도에 대한 치과의사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현재까지 접수를 하지 않은 치과의사들이 각 시도지부를 통해 계속 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가입희망을 밝힌 구좌 수보다 훨씬 많은 구좌가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치의연금제도의 가입율은 지부별로 살펴보면 강원지부가 71.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충북 64%, 인천 54.6%순이다.

## ◎ “의료수가고시에 큰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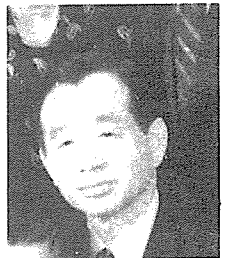
보사부가 지난 7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치의계의 반발이 크다. 이번 개정법률안 가운데는 일반의료수가를 보사부 장관이 결정토록 한다는 조항(제37조)이 들어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이 지난 16일 긴급지부장회의(엠베 서더호텔)를 열어 대처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동일 치협 학술위원회도 회의를 갖고, 개정될 법률안 중 일부 내용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학술위원회는 특히 제37조 조항이 자유경제체제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은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구강보건건강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학문발전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같이하고 이의 부당함을 각 학회별로 전의키로 했다.

이밖에 학술위는 개정되지 않은 특례제도 개선과 외국유학생에 대한 예비시험제도 신설, 國試에서 실기시험제도 도입 등도 관철시켜 나가기로 했다.

## ◎ 이정석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헌정

지난 8월 21일, 힐튼호텔 컨벤션홀에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이정석교수님의 회갑연이 많은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베풀어졌다. 이날 회갑연에서는 <한돌 이정석 교수 회갑기념 논문집>이 제자들에게 의해 헌정되었으며 이정석 교수님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 32년=8월 23일생 ▲ 56년=서울대치대 졸업 ▲ 75년=의학박사학위 취득 ▲ 78년~현재=연세대치대 교수 ▲ 82~84년=연세대치대 병원장 ▲ 86~88년=연세대치대 학장 ▲ 82~84년=공직치과의사회회장 ▲ 88~90년=PFA 한국회 회장.

## ◎ 전국 치과의사수 현재 1만1천1백96명

현재 전국 치과의사수는 1만1천1백96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82년 당시 4천2백66명이던 치과의사수

가 10년만에 무려 6천9백33명이 늘어났다.

해마다 증가하여 온 치과의사수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연도별 인구대 치과의사수

구분 연도	치과의사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	구분 연도	치과의사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	구분 연도	치과의사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	구분 연도	치과의사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
	86	200,744	1958	1,190	18,412	1972	2,554	13,119	1984	4,972	8,161
1920	(152)	(113,579)	1959	1,276	18,005	1973	1,463	13,846	1985	5,392	7,505
1948	667	30,025	1960	1,369	18,228	1974	2,422	14,324	1986	5,955	6,854
1949	740	27,253	1961	1,510	17,063	1975	2,595	13,596	1997	6,716	6,169
1950	756	27,132	1962	1,725	15,370	1976	2,744	13,069	1988	7,619	5,509
1951	796	25,956	1963	1,666	16,463	1977	2,899	12,568	1989	8,598	4,929
1952	881	24,000	1964	1,722	16,251	1978	3,102	11,934	1990	9,562	4,483
1953	911	23,535	1965	1,762	16,291	1979	3,326	11,306	1991	10,058	4,302
1954	938	23,237	1966	1,810	16,110	1980	3,620	10,552	1992	11,196	3,899
1955	967	22,236	1967	1,843	16,349	1981	3,947	9,810			
1956	1,040	19,927	1968	1,963	15,710	1982	4,266	9,220			
1957	1,125	18,952	1971	2,452	13,411	1983	4,611	8,664			

<치협자료>